

「陋巷詞」의 製作意圖

朴 三 燦

〈目 次〉

I. 序 論	(2) 自然觀
II. 本 論	(3) 理想觀
1. 時代의 背景	3. 「陋巷詞」의 製作意圖
2. 「陋巷詞」에 나타난 作者觀	4. 〈古寫本〉과 〈板刻本〉의
(1) 現實觀	내용 비교
[1] 窮苦之狀	III. 結 論
[2] 仁心의 問題	

一. 序 論

蘆溪에 대한 研究는 鷺山 李殷相의 “詩人 蘆溪와 그의 藝術”¹⁾이란 논문이 발표된 이후 그의 文學作品뿐만 아니라 文集에 대한 연구 및 作者是非에 대한 연구 등 여러 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李相寶教授는 蘆溪詩歌研究²⁾에서, 朴晟義教授는 「蘆溪歌辭」³⁾에서 그의 人物과 作品 全般에 대해 論述하였다. 그의 詩歌의 特性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앞의 두 分의 著書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論述한 연구로 鄭在鎬教授의 「朴仁老論」⁴⁾과 朴堯順 教授의 「朴仁老와 그의 詩歌」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1984년 4월에 蘆溪詩碑建立委員會에서 蘆溪歌辭 新 자료를 追記한 「蘆溪歌集」을 發刊하였다. 이처럼 蘆溪에 대한 연구는 그의 인물에서부터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그의 작품

1) 李殷相, 「鷺山文選」(永昌書館, 1954), pp. 401~429.

2) 李相寶, 「蘆溪詩歌研究」(二友出版社, 1978)

3) 朴晟義, 「蘆溪歌辭」(正音文庫56, 1974)

4) 鄭在鎬, 「韓國歌辭文學論」 「朴仁老論」(集文堂, 1982), pp. 445~460.

5) 朴堯順, 「韓國詩歌의 新照明」, 「朴仁老와 그의 詩歌」(枕求堂, 1984), pp. 58~78.

의 가치도 연구가 더함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陋巷詞」는 앞의 연구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고 최근에 이에 대한 연구도 몇 편 있었다. 지금까지 「陋巷詞」에 대한 연구는 크게 主題面에서 “오직 貧而無怨하고 自然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즐거움은 비할 때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여 安貧樂道系 歌辭로 보는 見解⁶⁾와 피폐한 農村實情과 農民의 生活像을 代辯하는 大農夫吟으로 보는 見解가 있었다.⁷⁾ 朴奎洪教授는 「陋巷詞小攷」라는 論題로 構造面에서 “首尾가 相關하며, 그 가운데에 具體的이고 寫實的인 逸話가 삽입되어 있는 짜임새 있는 構造를 가졌다”고 하였고, 主題面에서는 “安貧樂道”라 하였다.⁸⁾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見解를 再照明해 보고 그 不足分을 補充하여 보고자 한다.

文學作品은 作家的 경험세계에서 얻어진 産物이다. 경험세계는 작가가 呼吸하고 있는 현실 사회·문화의 諸現象이며 作家的 精神世界다. 蘆溪의 初期 歌辭인 「莎堤曲」·「陋巷詞」가 비록 ‘命作’·‘問作’에 의해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作자의 경험세계에서 얻어진 創作物이다. 이들 歌辭에는 蘆溪 자신의 現實意識이 강하게 表出되어 있다. 특히 「陋巷詞」는 朝鮮前記 歌辭에서 맞볼 수 없는 궁핍한 作자의 현실 의식이 寫實的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文學的 價値가 크다고 하겠다.

문학작품은 作자의 정신이 그 작품 속에 溶解되어 새로운 미적 정감을 형성시킨다. 문학 연구에서 그 정신이 어떻게 溶解되어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아 내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다. 「詩大序」에 “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而形諸言 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永歌之 永歌之不足 則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也”⁹⁾라 했다. 詩는 그 속에 뜻을 담고 있으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이루어 진다. 진정 作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作자의 情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발견함으로써 그 뜻을 더욱 선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陋巷詞」는 作자의 窮苦之狀과 安貧樂道를 노래하고

6) 徐元燮, 「歌辭文學研究」(螢雪出版社, 1982), p. 89.

李相寶, 앞의 책, p. 63.

7) 金基卓, 「蘆溪歌辭의 現實認識」- 陋巷詞를 中心하여 - (「嶺南語文學」, 제 7집, 1980), pp. 17~23.

8) 朴奎洪, 「陋巷詞 小考」(碧松 李根厚先生華甲紀念文集, 1986), pp. 263~277.

9) 舒衷正, 「中國古典文學論文精選業刊」, 「沈約劉勰鍾嶸三家詩論之比較研究」(中華民國 68年, 幼獅文化事業公司), p. 36, 再引用.

있다. 이러한 內容이 어떻게 서로 融合되어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곧 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陋巷詞」에 투영되어 있는 內容을 작자의 정감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推定하고자 한다. 그리고, 〈古寫本〉과 〈板刻本〉의 內容을 比較・檢討하여 〈古寫本〉의 어떤 內容이 〈板刻本〉에서 수정・삭제되었으며 그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時代的 背景

壬辰倭亂은 그 當時의 先人들의 意識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從來에 儒家思想을 바탕으로 한 觀念的 思考에서 現實利를 追求하는 思考로 변화케 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였다. 이러한 意識의 變化는 兩班層뿐만 아니라 庶民層에게도 싹트기 시작하였다. 壬辰倭亂 勃發 직전에 學問的 發達은 極에 달하였으나 그에 따른 弊端도 적지 않았다. 朱子學의 發達은 現實生活과는 거리가 먼 觀念的 傾向으로 흘러 갔고, 학문상의 견해 차이는 學派를 형성시켜 黨爭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朱子學의 弊端이 極度に 달하자 이에 부정적인 見解도 나타나게 되었다. 백성들의 살림을 맡아야 할 官僚層들은 백성들을 위한 政策을 펴지 못하고 자신들의 私利私欲에만 눈이 어두웠다. 이로써 백성들은 자연히 官僚層에 대한 尊敬心과 信賴感이 사라졌다.

壬辰倭亂은 沒落官人・儒生・庶孽 등의 신분들을 결탁시켰지만 官軍과는 倭軍을 目前에 두고서도 서로간에 마찰이 있었다. 오직 순박하기만 한 庶民들은 官軍과 義兵間의 그칠 줄 모르는 마찰로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있는가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壬辰倭亂이 끝나자 義兵들은 본래의 신분으로 예속되었지만 庶民들과 提携한 義兵將들은 지배층이란 점에서 대량 官屬・官職 등으로 포섭되었다. 이것은 庶民들을 더욱 지배층에 대한 배심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신분상의 격차를 맛보게 했다. 결국 壬辰倭亂은 지배층과 庶民層을 갈라 놓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고 庶民들의 意識에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 壬辰倭亂으로 인해 농촌은 더욱 황폐하여 농민들의 담세력은 점점

약화되었다. 담세력의 약화는 국가 재정이 궁핍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지배층의 정권욕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庶民들의 生活苦는 加動되었다. 이에 반해, 일부 지배층에서는 이러한 諸般 사회현상에 반성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從來의 觀念的인 朱子學의 思考를 반성하고 사회 현실을 직시한 務實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던 사회 변화 현상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陋巷詞」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얻어진 작가의 정신세계를 노래한 작품이다. 蘆溪는 儒家觀이 철저한 鄉班出身이다. 그는 「陋巷詞」를 통해 자신의 유가 정신과 현시대의 변화 상태에서 느끼는 자신의 심적 갈등과 그 조화를 노래하고 있다.

2. 「陋巷詞」에 나타난 作者觀

「陋巷詞」는 蘆溪 51세(1911년)에 지어진 작품이다. 이 歌辭는 “公從遊漢陰相公問公山居窮苦之狀公乃述已懷作此曲”이라 하여 자신의 窮苦之狀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런데 「陋巷詞」는 작자의 궁핍한 현실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자의 승화된 정감이 매우 組織的으로 묘사되어 있다. 文學的 表現에서는 論理는 불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文學的 表現에서 言語表象들이 아무런 必然性도 없이 恣意的으로 나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論理만큼이나 엄격한 統一原理를 요구한다.¹⁰⁾ 「陋巷詞」도 이러한 統一原理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는 그 統一原理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現實觀

① 窮苦之狀

서두에서 작자는 “어리고 迂濶할산 이내 우히 더니 업다”고 하여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심리상태를 보여 준다. 그는 吉凶禍福을 하늘에 부쳐 두고 가난하게 살아 간다 하더라도 장부의 安貧一念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뜻이 날이 갈수록 齟齬하다고 하였다. 그는 이처럼 서두에서부터 자신의 현실적 갈등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궁핍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으로 갈등을 느낀다고는 하지 않았다.

10) 崔載瑞, 「文字原論」(春潮社, 1960), p. 118.

서흙 밤 닷흙 彌에	烟氣도 하도 할사
설데인 熟冷에	빈 빈 석일 뿐이로다
生涯 이러랴다	丈夫 뜻을 옮길언가

그는 매우 궁핍한 현실적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安貧一念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였다. 吉凶禍福을 하늘에 부쳐두었다는 말은 현실을 긍정하며 安貧一念으로 살아가겠다는 뜻과 같다. 따라서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결코 가난하기 때문에 安貧一念이 날이 갈수록 齟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陋巷詞」에 나타난 현실적 궁핍은 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진정한 뜻은 아니지만, 작자의 현실적 궁핍이 具體的이고 寫實的으로 표현됨으로써 작자의 意圖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다. 궁핍이란 현실적 상황과 安貧樂道란 정신적 작용은 일반적으로 서로 대조된다. 이러한 현실적 궁핍의 제시는 청자로 하여금 강한 호소력을 부여시킨다. 즉 청자로 하여금 同質的인 共感帶를 형성시킨다. 이 때 청자의 신분상의 差異는 무시된다. 작자의 窮苦之狀의 솔직한 표현은 청자로 하여금 信賴性を 갖게 하고 憐憫의 情마저 불러 일으킨다. 특히 士大夫와 庶民과의 乖離된 현실 속에서 窮苦之狀의 제시는 庶民層에게 同質的인 共感帶를 형성시키고 安貧樂道하려는 마음의 제시는 士大夫에게도 역시 같은 共感帶를 형성시킨다.

詩 創作은 작자의 정감이 움직일 때 가능하다. 「陋巷詞」는 漢陰이 蘆溪에게 窮苦之狀을 물음에 그 대답으로 표현된 蘆溪의 정감의 表象이다. 정감은 體驗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때 安貧樂道하려는 작자의 意志는 그의 정신세계이며 窮苦之狀은 작자의 현실적 삶의 表象이라 하겠다.

② 仁心의 問題

그는 앞에서 2 가지 問題를 노래하였다. 하나는 安貧樂道하는 정신이 問題이고, 다른 하나는 궁핍이라는 현실적 問題이다. 작가의 정감은 고리처럼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진다. 즉 작품은 동기와 작가의 내면에 축적된 심적 상황과의 끊임없는 교류 속에서 創作된다. 「陋巷詞」에서 나타난 窮苦之狀은 작품을 이루는 동기라 한다면, 작자의 儒家精神은 그의 내면에 축적된 심적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는 먼저 정신적인 요소를 제시한 뒤에 이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舊義 忘身 ^호 야	죽어야 말려 너져
于囊 于囊 ^의	죽음이 모아 너코
兵丈 五載 ^에	敢死心을 가져 이셔
履戶 涉血 ^{하야}	몇 百戰을 지네 ^{연고}

이 부분은 壬辰倭亂의 역사적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 이 經驗은 그 시대인들의 공통된 것이었으며 戰亂을 어떻게 克服해 왔던가를 암시한다. 이 克服은 義로서의 敢死心이었다. 나라를 위해 죽음까지 不辭했던 그들은 이제 義를 저버리고 신분마저도 망각하게 되었다.

一身이 餘暇 ^{잇사}	一家를 도라보라
一奴 長鬚 ^논	奴主分을 이젓거든
告余春及을	어니 사이 생각 ^{호리}
耕當問奴 ^{인들}	농노려 물물 ^{논고}
躬耕 稼穡 ^이	니 분인 줄 알리 ^{로다}

士大夫의 신분은 庶民들의 눈에서 벗어났다. “一奴 長鬚^논 奴主分을 이젓거든”이라 하여 유가 사회에서 신분을 중시하던 종들도 이제는 주인도 무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雇工歌」에서 雇工의 신분의 망각을 노래했듯이 이러한 현상은 그시대 사회의 한 단면이며 이를 克服하고자 하는 당시 儒家人들의 갈등이었다.

그는 신분이 망각된 사회에서 糊口之策을 위해 躬耕 稼穡하려고 한다. 「雇工歌」에서 주인이 스스로 새끼 꼬는 것처럼 스스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 어느 누구를 탓하기 보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며 살아 가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정신은 그의 素朴함과 성실함을 중요시하는 人生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어화 괴 뉘신고	廉恥업산 니옴노라
初更도 겨원티	괴 엇지 와 겨신고
年年에 이러 ^호 기	苟且 ^호 줄 알전만 ^논
쇼 업산 窮家 ^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 ^호 니나 감시나	주엄죽도 恨 ^호 라마 ^논
다만 어제밤의	거넌 집 저 사람이

11) 鄭在鎬, 앞의 책, p. 457.

목 물근 수기 雉을	玉脂泣게 꾸어니고
간이근 三亥酒을	醉토록 勸하거든
이리헛 恩惠을	어이 아니 갑홀언고
來日로 주마 하고	큰 言約 하야거든
矢約이 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왜라

이 부분은 소를 빌려 갔다가 빌리지 못한 상황을 대화체로 노래하고 있다. 대화체의 효과는 작가의 정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청자에게 강한 현실감과 호소력을 불러 일으킨다. 위의 대화는 어떤 觀念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內容이며 어떤 군더더기가 없다. 이러한 표현은 청자에게 지루감마저 감소시켜 준다. “矢約이 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왜라”고 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는 信義가 없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었다. 그는 현실에 적응하여 躬耕 稼穡하려는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가졌지만, 소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그가 궁핍하게 된 원인이며, 갈등을 갖게 된 주된 동기이다. “無情헛 戴勝은 이니 恨을 도우나다.”, “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나다”고 하여 세상을 한탄한다. 그는 가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한탄하지 않았다. 隋宜로 살려하는 작자의 심적 상태에서 부딪치는 갈등은 궁핍한 현실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서 나타난 仁心의 결핍이었다. 즉 갈등의 원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 있었다.

출하리 첫봄의	꼭라나 불일 거술
이제야 플너 훈들	알 니 잇사 사러 오랴
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그는 소를 빌리지 못하여 밭 가는 시기를 놓쳐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뉘라도 팔아 생계를 잇고자 하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는 농사 일을 諦念한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갈등에 대한 諦念이라 할 수 있다. 그는 諦念함으로써 자연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자연은 諦念에서 昇華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2) 自然觀

자연은 당시인들의 休息空間이며 삶의 空間이었다. 鄭炳昱教授는 “江湖歌道란 결코 인생시일지연정 자연시는 못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연을 위해 노래한 것이 아니라 삶에 지친 인생의 불평을 자연을 빌어 위로를

받기 위해 자연을 노래하였던 것에 불과 하였다”¹²⁾고 한 것처럼 그들의 자연은 생활의 空間이었다. 「陋巷詞」는 현실의 삶에서 지친 인생의 불평을 자연을 빌어 위로 받기 위하여 노래한 것은 틀림없지만 자연시가 되지 못하고 인생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연의 깊이를 망각한 것은 아니다. 儒家思想은 現實主義 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을 대상으로 노래했을 때, 그것은 현실과 격리되어 나타날 수 없다. 즉 儒家의 自然觀은 인간의 현실 상황과 분리되어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江湖 흔 꿈을 우연지도 오리러니
 口腹이 爲累야 어지버 이저씨다.

여기에 나타난 江湖는 현실과 대립된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현실은 생활의 공간인 데 비하여 江湖는 理想의 공간이다. 그가 찾은 자연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자연이 아니라 자신의 관념 속에 내재된 정신적 삶의 공간이다. 이 江湖는 오래 전부터 마음 속에 두고 있었던 자연만큼 우연히 찾은 자연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 江湖는 단지 자신을 위로 받기 위한 공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현실적 갈등을 體念함으로써 자연을 찾을 수 있었다. 謫念을 昇華시키기 위한 수단이 바로 자연이다.¹³⁾ 따라서 그의 江湖는 자신의 문제에서 昇華되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부여시켜 주는 同化된 자연이다. 松湖의 「關東別曲」에 나타난 자연은 자연의 아름다운 면에서의 우아미와 신선과 학을 소재로한 숭고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신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술’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매체로 이용되어 理想世界 건설로 이어진다. 이처럼 詩歌에서 자연의 역할은 현실과 연결된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象徵化된 儒家의 理想鄉이다. 「陋巷詞」에 나타난 자연은 현실의 조화를 찾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공간이다. 그는 자연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깨닫고 인간의 본성을 찾아 그 정신을 현실의 삶에 환원시켜 理想的인 현실을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다.

12) 鄭炳昱, 「한국고전시가론」(신구문화사, 1978), p. 373.

13) 申東旭, 「韓國抒情詩에 있어서 現實의 理解」(민족문화연구, 1976), p. 142, “自然과 人間의 結合은 많은 人間의 어려움을 겪고난 다음에 얻어진 一種의 謫念일 수도 있었으리라”고 하여 자연을 謫念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자연을 승화된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瞻彼淇澳 軒디	綠竹도 하도 할사
有斐君子 돌아	낙디 軒나 빌려스라
蘼花 집른 곳에	明月淸風 벗이 되야
남적 업슨 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無心호 白鷗야	오라 軒며 말라 軒라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우리 詩歌에서 “낙시는 隱者의 淸事를 象徵하고 明月淸風은 退休의 閑情을 象徵하며 白鷗는 純潔과 脫俗을 象徵한다.”¹⁴⁾ 이같은 소재 선택은 우리 詩歌의 보편적인 경우지만 이것이 작가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났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다소 달라진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陋巷詞」에 나타난 자연의 노래는 우리 詩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관념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蘆溪 萬年의 歌辭인 「蘆溪歌」에서는 그 자연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서로 比較하면서 살펴보자. 이렇게 서로 比較해 봄으로써 「陋巷詞」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蘆溪歌」의 자연은 「陋巷詞」의 자연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심리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蘆溪歌」에서 자연은 “달알이 괴기 낙고 구름 속의 바흔 가라”, “물근 바람 더 되 오니 鏡面이 더욱 발다”, “검흔 돌이 다 보이니 괴기 數를 알리로다”, “물도 하눌갈고 하눌도 물갓호니”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자연의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으로, 자연을 아름답게 본 것은 작자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陋巷詞」는 경제적 궁핍에서 얻은 자연이다. 비록 그는 안정된 마음으로 자연을 승화의 개념으로 노래하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現實問題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래하고 있다.

「陋巷詞」에 나타난 자연의 소재가 「蘆溪歌」에도 나타나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 ① 낙시: 괴기도 나치 이거 놀닐 줄 모르거든 차마 엇디 낙굴넌고
- ② 明月淸風: 明月淸風도 말 암시 절로절로
明月淸風은 논호 튼기 어려울석

14) 金錫夏, 「韓國文學이 樂園思想研究」(日新社, 1973), p. 177.

③ 白鷗: 물 가에 白鷗은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른다

①의 경우를 살펴보면, 「陋巷詞」에서는 「詩經」衛風 淇澳章의 瞻彼淇澳 綠竹猗猗 有斐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¹⁵⁾의 詩句를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교양 높은 君子의 정신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현실적 불만과 갈등을 잊고 이를 昇華시키기 위해 有斐君子들에게서 낚시를 빌리려고 했다. 여기서 낚시를 빌린다는 말은 그들의 정신을 빌리고자 하는 뜻이다.¹⁶⁾ 「蘆溪歌」에서는 “괴기도 나치이거”라 하여 자연과 친밀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낚시 행위는 假漁翁일 수밖에 없다.

②의 경우를 살펴보면, 두 작품 모두 “절로절로”라 하여 자연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절로절로”는 우리의 自然觀이요, 同時에 自然을 理解하는 方式이란¹⁷⁾ 점에서 서로 큰 차이점은 없다. 다만, 「蘆溪歌」에서 “明月淸風은 눈썹뉘기 어려울식”라 하여 자연의 법칙을 찾기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신을 그 자연을 찾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③의 경우를 살펴보면, 「陋巷詞」에서는 “오라¹⁸⁾여 말라¹⁹⁾라”고 하여 ‘백구’와 ‘내’가 서로 친밀하고 다투지 않는 관계로서 主從關係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蘆溪歌」에서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른다”고 하여 단지 백구의 자유로운 모습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자연을 보는 意識構造가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도 달리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같다. 즉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陋巷詞」에 나타난 자연은 궁핍 속에서 찾은 자연인만큼 자연 그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觀念化된 자연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속에서도 작자 자신의 현실의 심적 상태가 無意識中에 포함되고 있다. 有斐君子들에게 낚시대를 빌린다는 데서 ‘빌린다’는 표현 속에는 소를 빌리지 못한 심정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며, 백구와 主從關係가 없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표현은 현실의 인

15) 詩經, 衛風 淇澳章.

16) 鄭在鎬, 앞의 책, p. 454. “낚시대나 빌려 놀자는 표현은 과장이며 약간은 억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현에 중점을 두고 평한 것이다.

17) 趙潤濟, 「國文學概說」(東國文化社, 1955), p. 415.

정없는 인간 세계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陋巷詞」에 나타난 자연은 작자의 현실적 불만이 그 속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陋巷詞」에 나타난 자연은 觀念的인 자연이며, 우리 사가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이다. 자연 그 자체는 “獨善의 世界”¹⁸⁾를 認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록 認識되는 강도나 의도는 다르지만 「蘆溪歌」에 나타난 自然觀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그 자연 속에 작자의 불만적 심적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을 완전히 ‘物我一體’의 개념으로 認識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입장에서 평한 것이며, 청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의 제시는 인간의 진실과 본성을 찾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3) 理想觀

理想世界는 現實世界에서 얻을 수 없는 인간의 꿈의 상황의 標本이다. 「陋巷詞」에 나타난 理想世界는 자연에서 抽象的으로 보여준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현실적 꿈의 심적 상황이다.

네生涯 이리호되	설운 뜻은 업노왜라
單食瓢飮을	이도 분히 너기로라
平生 혼 뜻이	溫飽애는 업노왜라
大平 天下애	忠孝를 일을 삼아
和兄弟 信朋友	외다 혼리 워 이시리
그 박의 남은 일이야	삼긴 뒤로 살렷노라

그는 자연을 통해 天地造化를 깨달았다. 비록 궁핍한 현실과 인정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貧而無怨하고 安貧一念을 지키며 살려고 한다. 서두에서 齟齬해 가는 자신의 安貧一念은 자연을 통하여 새로운 安貧樂道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연의 天地造化와 그 속에서 얻은 인간의 본성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인 데 있다. 작자의 현실적 갈등은 인심의 결핍에서 왔다. 이는 작자의 문제이자 그 시대인들의 문제였다. 忠孝·私兄弟·信朋友는 儒家의 현세관에 기본된 개념이며 이상적 삶의 세계다. 이것은 인정 없는 現社會에 절실히 요구되는 요소로써 仁心回復의 조건인 것이다.

그는 여기서 2 가지 理想觀을 제시했다. 하나는 “子曰 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¹⁹⁾라는 顏回의 精神과

18) 崔珍源, 「江湖歌道の 研究」(상균관대학교 논문집 제8집, 1963), p. 27.

19) 論語, 雍也篇.

또 하나는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憂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交”²⁰⁾이라는 曾子의 精神을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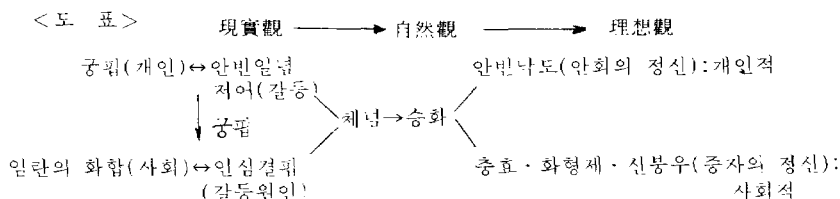
3. 「陋巷詞」의 製作意圖

「陋巷詞」는 〈古寫本〉과 〈板刻本〉이 있다. 〈古寫本〉題下에는 “漢陰相公命作”이라 하였고 〈板刻本〉題下에는 “公從遊 漢陰相公 相公問公 山居窮苦之狀 公乃述已懷 作此曲”이라 하여 그 製作動機를 밝혀 놓고 있다. 「陋巷詞」의 製作動機가 漢隱의 ‘問作’이나 ‘命作’이나 하는 문제는 기록자의 입장과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기록될 수 있다. 漢隱과 蘆溪는 서로 同年輩로서 당시 漢隱은 相公의 지위에 오른 분으로 龍津江 別墅村 莎堤에 병으로 隱居하고 있었다. 이 때 蘆溪는 그의 貧客으로서 그와 從遊하며 친분을 다져나갔다. 漢隱은 蘆溪를 ‘善歌者’라 稱하였고 그를 國士로 대우하여 중앙에 추천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命作’보다는 ‘問作’이 더욱 친근감이 간다. 그러나 漢隱과 蘆溪는 서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자는 이러한 신분의 차이를 고려했을 것이다. 또 시대적 상황이 신분을 중시한 사회라면 ‘命作’이라 하였을 것이고, 신분의 차이가 좀 자유로운 따르면 ‘問作’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陋巷詞」는 題目에서 알 수 있듯이 작자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서 자신의 安貧樂道를 추구한 작품이다. 그는 漢隱이 물은 ‘山居窮苦之狀’만을 노래하지 않고 자신의 理想世界까지 노래하고 있다. 「陋巷詞」에 나타난 窮苦之狀은 그 시대의 현실적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安貧樂道를 노래한 것도 그의 현실 의식에 있다. 「太平歌」에서 “窟穴을 구어보니 구든 덧도 火다마는 有敗灰燼하니 不在險을 알니로다”고 하여 전쟁의 승패는 天險에 있는 것이 아니라 人力에 있다고 하였다. 이 歌辭는 부분적으로는 역사적 사실과 遊離된 점도 없지 않으나 이것은 군사를 鼓舞시키기 위한 작자의 現實意識을 반영한 것이다. 또 「般上歎」에서 “두어라, 既往不咎라 일너 무엇 火로소니 속절 업슨 是非를 후리쳐 더터두자”라 하여 지난 날 배를 만든 軒輊氏나 왜적이 생기도록 한 秦始皇을 탓하지 않고 오직 왜적을 무찔러야 한다는 그의 現實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작자의 現實意識이 그의 작품 속에 자주 表出되고 그 정신이 작품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그의 정신이 철저한 儒家觀에 입각한 現世觀에 있기 때문이다.

20) 論語, 學而篇.

「陋巷詞」는 “가난에 대한 원망”²¹⁾ 노래한 것은 아니다. 그는 철저한 儒家觀의 소유자다. 유가의 삶은 현실을 인정하는 삶이다. 또한 그만큼 자신을 지키는 명분도 강하다. 당시 사회는 혼란한 시기였고 현실적 궁핍은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한 시기에 批判意識을 갖지 않은 사람은 소수였을 것이다. 蘆溪도 現實批判意識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궁핍과 世態의 원망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의 원망은 가난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인심없는 世態의 원망이었다. 「陋巷詞」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작품의 구조를 도표로 표시하여 보았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陋巷詞」에서 궁핍은 개인의 문제였고 그 원인은 인심결핍의 사회적 문제였다. 그는 갈등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 두지 않고 사회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陋巷詞」는 2 가지 현실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궁핍한 상황과 仁心の 결핍이다. 殘班出身인 蘆溪로서는 庶民이면서 士大夫이기도 하다. 그의 현실 생활은 前者였고 그 정신은 後者였다. 그래서 그는 양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었다. 그는 농민들의 흥겨운 노래에 흥을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로도 그가 농민을 대표하기 위해 노래한 것²²⁾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가 작품 속에서 원망하고 있는 것은 仁心の 결핍이라는 世態다. 이것은 관료층인 漢隱이나 庶民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문제다. 즉 그는 1차적인 청자인 漢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2차적인 청자인 庶民들도 意識했다. 그가 자신의 가난을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보편적인 文學觀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가난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에 대한 불만을 간추고, 인간의 본원적인 문제인 仁心을 원망함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삶을 드러낸 것은 어느 청자층이든 격한 감정을 불러

21) 金文基, 「庶民歌辭研究」(蠶雪出版社, 1983), p. 178.

22) 金基卓, 앞의 책, pp. 17~23.

일으키지 않고 작자의 의도에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陋巷詞」가 갖는 美的 價値다.

당시의 文學觀은 “詩之爲道 可以理性情 善倫物”²³⁾이었다. 이것은 개인의 德性을 陶冶시켜 社會教化 나아가서 국가의 安寧을 도모함에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文學觀은 意圖의이라기보다 당시 작가들의 자연스러운 시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蘆溪는 儒家觀이 철저한 분인만큼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여 청자를 教化시키는 시상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작자가 처해 있는 극한적 궁핍생활을 나타내고 仁心이 결핍되어 있는 世態를 恨歎하는 것만이 「陋巷詞」의 製作意圖라고 할 수 없다. 그는 현실적인 생활상의 자신의 정서에 강하게 와 닿는 정신적 삶과의 교류 속에서 「陋巷詞」를 창작하였다. 前者가 현실적 삶의 공간이라면 後者は 정신적 삶의 공간이다. 後者를 제시함으로써 前者의 사회적 불만이 무엇인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고, 教化의인 內容도 함께 보여줄 수 있었다. 그는 현실적 삶의 갈등과 安貧樂道·忠孝·和兄弟·信朋友의 정서를 공유하는 본원적인 삶의 정감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다.

4. 〈古寫本〉라 〈板刻本〉의 내용 비교

〈板刻本〉은 初刊이 正視 24年(1800AD)에 있었고 다시 100年 後인 光武 8年(1904A.D)에 重刊이 되었으며 그 後 半世紀를 지나 1959에 第三版이 나왔다. 이 외에도 年代 未詳의 版本과 光武 年間 版本에는 두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原版에 加補를 약간 한 것이며, 三版은 原版을 그대로 使用하면서 毀損된 板을 改刻하고 新發見의 立巖 29曲 등을 追加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蘆溪集」全部를 다시 박은 것이 아니라 歌詞의 部分만을 새로이 첨가 또는 原版을 利用했으므로 「蘆溪集」板本이라기 보다는 「蘆溪歌詞 板本」이라 하겠다. 또 1984년에 「蘆溪歌集」이 간행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原版을 利用하여 신작품을 金榮淑教授의 서필로 새로 첨가하여 간행한 것이다. 〈古寫本〉은 蘆溪 宗孫 朴秉一氏 所藏으로 「莎堤曲」과 「陋巷詞」(後尾數行缺)만 수록되어 있다. 〈古寫本〉의 간행 시기는 적어도 金天澤이 「靑丘永言」을 편찬한 以後로는 내려올 수 없으며 英祖 4年(1728A.D)까지 즉 38年 사이의 일로서 이것은 「蘆溪集」初刊이 나온

23) “시란 사람의 천성과 정서를 조정하고 인간관계를 향상시킬수 있어야 한다”(沈德潛:說詩碎語)

崔雄, 「한국고전시학사」, 「朝鮮中期의 詩學」(弘盛新書, 1979), p. 265 재인용.

正祖 24年(1800A.D)보다는 70여년 앞선 때다.²⁴⁾

「陋巷詞」의 〈古寫本〉과 〈板刻本〉의 比較研究를 통해 〈板刻本〉에서 볼 수 없는 切實한 妙句와 이렇게 수정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먼저 표현상 변형을 보인 부분을 살펴보자.

- | | |
|----------------|--------------|
| ① 닛홉밤 서홉 粥에(고) | 서홉밤 닛홉 粥에(판) |
| ② 苦楚흔 人生이 | 貧困흔 人生이 |
| ③ 엄섬이 말홀시 | 엄섬이 혼 말삼 |
| ④ 죽고저도 혼 것마논 | 苟且흔 줄 알건만논 |
| ⑤ 쇼 업슨 이 몸이 | 쇼 업슨 窮家애 |
| ⑥ 앓가온 쇼보논 | 아싸온 저소뵈논 |
| ⑦ 口腹이 怨讎이 되야 | 口腹이 爲累 혼야 |
| ⑧ 절노 늘그리라 | 절로 절로 늘그리라 |

여기서 살핀 바와 같이 8 군데 차이가 난다. 〈板〉이 內容·韻律面에서 〈古〉보다 부드럽게 표현되었다. ①의 경우, 〈板〉에서는 밥으로 만들면 서홉이고 죽으로 만들면 닛홉이 된다는 뜻이지만, 〈古〉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②·④·⑤·⑦의 경우, 苦楚→貧困, 죽고→苟且, 이몸→窮家, 怨讎→爲累로 각각 달리 표현하였다. 〈板〉은 〈古〉에서보다 다소 작자의 격한 감정이 삭감되어 나타났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인 관점으로 수정되었다. 즉 개인적인 정서에서 대중적인 정서에 가깝게 느껴지도록 수정되었다. ③·⑥·⑧의 경우는, 韻律面에서 ③과 ⑥은 3·3調→3·4調 ⑧은 2·4調→4·4調로 바뀌었다. 〈板〉에서는 이처럼 불규칙적인 律格을 거의 3·4調 4·4調로 수정하여 당시의 律格에 맞도록 고쳤다.

다음은 〈板刻本〉에 삭제되어 있는 內容을 살펴보자.

- | | |
|-----------------|--------------|
| ① 언매만히 바든 밥의 | 懸鷄稚子들은 |
| 창의 버려 줄 미뎃 나아오니 | 人情 天理에 |
| 츄아 혼자 먹을 년가 | |
| ② 다만 혼나 뵈 독 우히 | 어론덜 도든 늘근 쥐논 |
| 貧多務得 혼야 | 恣意揚揚 혼니 |
| 白日 아래 強盜로다 | 아야러 어든 거슬 |

24) 黃忠基, 「莎堤曲小考」(「국어국문학」제 9 집, 1969), pp. 474~475 참조.

- | | |
|--------------|-------------|
| 다 狹穴에 앓겨 주고 | 碩鼠三章을 |
| 時時로 吟咏하며 | 歎息無言하야 |
| 搔白首 鬢니로다 | 이 中에 탐살은 |
| 다 내집의 되찾는다 | |
| ③ 술 고기 이시면 | 권당 엇도 하렷마는 |
| 두 주먹 뵈게 쥐고 | 世態 업슨 말슴애 |
| 양주 흐나 못 고오니 | 항릭 아적 불일 쇼도 |
| 못 비러 마랏거든 | 항 몰며 東郭墻間의 |
| 醉홀 鬢을 가털소나 | |
| ④ 출하리 첫봄의 | 꼭라나 불일 거술 |
| 이제야 풀너흔들 | 알니 잇사 사러오라 |
| ⑤ 이제야 쇼비리 | 盟誓코 다시마자 |
| ⑥ 가난타 이제 죽으며 | 가으며다 百年살나 |
| 原憲이느 밋날 살고 | 石崇이느 밋히 산고 |

위의 내용들은 작자의 窮苦之狀을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된 것들이다. 먼저 韻律面에서 보면, ①의 “장지 버러 줄미덧 나아오니”(4·7調), ②의 “어론털 도든 늘근 쥐느”(5·4調), ③의 “술 고기 이시면”(3·3調), ④의 “출하리 첫봄의”(3·3調), ⑤의 “이제야 쇼비리”(3·3調), ⑥의 “가난타 이제 죽으며”(3·5調) 등으로 불규칙적인 律格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破格을 보이는 것은 미끄러운 韻律의 쾌감보다 자신의 정감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한 데 있다. 漢隱은 蘆溪를 ‘善歌者’라 칭한 바 있다. 이것은 蘆溪가 노래를 잘했다는 말인데 「善歌」나 「名歌」나 한 것은 단순한 作家에 그친 것이 아니라, 歌唱도 하던 사람임을 말하는 것으로,²⁵⁾ 단순히 歌唱만을 잘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말이 아니라고 볼 때, 漢隱이 稱한 말은 “歌詞 內容이 아니라 作曲이 아닌가 한다”²⁶⁾고 추측하기는 어렵다. 즉 이러한 명칭은 문학성을 전제로 두고 붙여진 것이라 생각된다. 또 사실적인 데 비해 과장된 표현도 보인다. ①의 “장지 버러 줄 미덧 나아오니” ②의 “이 中에 탐살은 다 내 집의 되찾는다”등이 그러한 예다. 또 격한 느낌을 주는 부분으로 ③의 “두 주먹 뵈게 쥐고” ④의 “출하리 첫봄의 꼭라나 불일 거술” ⑤의 “盟誓코 다시 마자” ⑥의 “가난타 이제 죽으며”와 같은 것

25) 최동원, 「肅宗, 英祖期の 歌壇 研究」(부산대학 논문집, 1976), p. 13 참조.

26) 黃忠基, 앞의 책, p. 468.

들이다. 특히 〈古〉에는 ‘죽음’이 3번 보이지만 〈板〉에는 〈古〉에서 患에 대해 보여준 내용만 1번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蘆溪 후손들이 爲先과 自矜을 위한²⁷⁾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정·삭제는 그 시대의 문학관과 관계가 있다.

‘당시 文學觀은 載道的 文學觀과 個性的 文學觀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중심되는 文學觀은 載道之器에 두었다. 당시 시인들에게 있어서 표현, 수사의 문제는 寫實性和 자연스러운 표현 그리고 자유성을 강조했다. 사실성은 시인의 직접 경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상상적이거나 과장적인 표현은 배격되는 것으로 시의 회화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묘사의 구체성으로 바뀌어 강조되기도 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표현이란 字句의 鍊琢이나 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과 여운이 담긴 詩趣를 말한다. 그리고 자유성은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내용의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성과 상이한 견해로써 과장법까지도 중요시 한다.’²⁸⁾ 이러한 제반 현상들을 고려해 볼 때, 〈板〉에서 〈古〉의 과장된 부분의 삭제와 격한 감정의 수정과 韻律의 수정 등은 자유성보다 사실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④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작품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 것은 (앞에서 이 부분을 체념의 의미로 보았음) 자연스러운 표현에 어긋난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과 삭제에도 불구하고 첨가가 없다는 점에서 작자의 개성을 무시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정·삭제는 당시의 文學觀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認識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준에서 본다면, 〈板〉은 작자의 개성을 다소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板刻의 목적이 대중성에 있다면 그 당시의 알맞은 韻律과 보편적인 내용으로 수정·삭제함은 바로 이러한 점의 고려에 있다고 하겠다.

Ⅲ. 結 論

지금까지 「陋巷詞」를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구조적 순서에 따라 작자와 청자의 관계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製作意圖를 추정하였다. 또 〈古〉와 〈板〉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당시의 文學觀과의 관계를 살

27) 沈載完, 「孤山·蘆溪·松江全集」, p. 697.

28) 鄭大林, 「한국고전시학사」 「朝鮮後期の 詩學」 (弘盛新書, 1979), pp. 387~390.

펴보았다.

1. 窮苦之狀의 구체적 제시는 청자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의 갈등은 仁心の 결핍으로 인한 安貧一念의 齟齬였다. 이러한 표현은 역설적인 것으로 인간의 진정한 삶인 安貧樂道와 忠孝·和兄弟·信朋友로 이어졌다. 또 대화체 사용은 작자의 갈등 원인이 仁心の 결핍에 있다는 구체적인 제시였으며, 청자에게 지루함을 감소시키고 생생한 현실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공감 요소들은 관료층에게는 庶民의 궁핍한 생활상을 인식시키고 庶民들에게는 화합의 사회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2. 자연의 觀念의 표현은 자신의 궁핍을 昇華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 소재는 우리 시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었다. 그는 자연을 노래하면서도 현실의 불만 요소가 無意識中에 삽입되어 있었다. 또 자연을 昇華의 개념으로 認識시켜 청자들을 화합의 세계로 연결시켰다.

3. 「陋巷詞」는 당시 이권에 눈이 어두운 사회인들의 무질서한 意識속에서 자신의 궁핍한 현실과 仁心の 결핍을 보여주고, 자신의 정신적 삶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 삶의 갈등과 安貧樂道하고 서로 화합하는 본원적인 삶의 정감을 나타내려고 했다.

4. 蘆溪의 후손들이 〈古寫本〉의 내용을 수정·삭제한 것은 단지 그들의 爲先과 自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文學觀과도 관계 있으며, 대중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했음을 알았다.